

4.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 해설

1) 인문·사회계

문항

1

문제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약 강제력을 쓰지 않고도 남에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굳이 강제력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남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여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권력이다. 이러한 권력이 국가에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을 국가권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에는 반드시 **폭력**을 비롯한 강제력의 행사가 전제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다. 다만 권력 행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민들은 국가에 권력을 위임하였다. 그 까닭에 오직 국가만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그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권한을 독점한 것이다. 국가의 강제력은 경찰과 군대의 역할에서 잘 나타난다. 경찰은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서 가두기도 한다. 또 군대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하여 이에 대응한다. 이처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권력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식민지를 경험한 개발도상국의 ‘경찰’·‘검사’·‘법원’ 같은 이름을 달고 있는 조직들이, 해야 할 일을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조직들은 대부분 서구 열강이 식민지에 세운 것이며, 이는 본국에서 발달한 조직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식민지 경찰은 서구 열강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따라서 경찰은 국가 안보와 폭동 진압을 강조했다.

독립 이후에도 이런 역기능은 그대로 남았는데, 그 이유는 권력을 잡은 독재정권과 정치 엘리트들이 식민정책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사법제도를 망가뜨리고 빈민과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들고 폭력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폭력**과 공포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권을 추구해 왔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강제력을 제재하는 형사사법제도를 위협으로 여기며 제도 개혁에 강하게 저항했다.

(다) 파농(Fanon, F.)은 식민주의가 근본적으로 폭력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폭력에 의해 왜곡된 인간의 정신 및 육체를 통해서 대항적인 **폭력**에 대해 고찰하였다. 파농이 마지막으로 당도한 문제는 폭력의 동기 부여와 표적이었다. 그는 증오에 근거한 폭력은 지배자의 작은 온정에도 쉽게 흔들리므로 결코 변혁을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폭력에 지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즉, 폭력이란 단순히 권력의 획득이라는 대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취기를 깨우는 해독작용이며, 압도적인 힘을 가진 주인에 대한 원주민의 열등 콤플렉스나 방관 내지 절망적인 태도를 없애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피 흘리는 투쟁을 통한 독립은 자신을 식민지로부터 보다 근본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결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식민지와 식민지 괴뢰정부 밑에서 안주하던 엘리트와 독립 후의 엘리트들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결국 사회는 본질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 아나키즘(anarchism)을 삶의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나키즘을 단순히 무정부주의로 번역하지 않는다. 이들은 반강권주의(反強權主義)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한다. 아나키스트는 모든

권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권력을 거부할 뿐, 스스로 동의한 권위라면 전체의 결정이라도 자신이 결정한 것처럼 따르려 한다.

무정부주의라는 잘못된 낙인과 함께 아나키즘이 가장 많이 받는 오해는 테러리즘이라는 비난이다. 하지만 아나키즘은 무차별적인 테러를 찬양하지 않는다. 아나키즘은 잘못된 결정이나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울 때에만 나의 자치와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믿고, 오히려 사회 정의와 모두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으라고 권한다. 이에 아나키즘은 국가만이 아니라 시장의 폭력에도 맞서고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주의에도 반대하며,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나키즘은 자신이 선택한 결정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무정부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과 달리 나는 지금 당장 정부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지금 당장, 보다 나은 정부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중략)…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마땅히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느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단체에는 양심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양심을 가진 단체이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은 없다. 오히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조차도 매일매일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중략)… 불의의 법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는 그 법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법을 어길 것인가?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겨라.

1-1. 제시문 (가)와 (마)의 논지를 바탕으로 국가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과 시민의 자세를 서술하시오. (200자±20자) [10점]

1-2.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밑줄 친 폭력의 목적을 각각 설명하시오. (250자±20자) [20점]

출제 의도

문제 1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려면 국가와 국민이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관한 고민을 이끌어내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인간 삶 속에 존재하는 폭력의 다양한 양상을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 목적에 따라 폭력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파악하게 하고,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시민 불복종에 관한 생각을 종합·정리하여 서술하게 하였다.

문제 1-1은 국가권력에 대한 두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하고 종합하여, 국가의 권력 행사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과 국가권력을 대하는 시민의 자세를 파악해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문제 1-2는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폭력의 모습을 제시하여 그 목적에 따라 폭력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여 설명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문 제 해 설

문제 1은 먼저 인간 삶에서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의 양상을 제시하여, 각각의 폭력이 행사되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과연 폭력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하는 데 의도가 있다. 그리고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관해 고찰하고, 이를 국가권력과 시민의 관계 속에서 이해, 파악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데도 목표가 있다.

제시문 (가)는 『사회』, 『법과 정치』,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국가권력이 강제력을 독점할 수 있는 이유로 권력의 획득과 행사과정에서 주권자의 동의와 지지가 전제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게리 하우겐의 『국가폭력』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국가권력이 사유화 되어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쉬움을 경계하는 본 제시문은 권력의 남용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 (다)는 사카이 다카시의 『폭력의 철학』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식민지하에서 가해지는 무자비한 폭력은 피지배자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고 인간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피 흘리는 투쟁을 통해서만 열등감과 의존성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제시문 (라)는 하승우의 『아나키즘』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국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자신의 자치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폭력적 수단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제시문 (마)는 데이빗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법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하며, 법집행을 비롯한 권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견제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글이다.

평 가 기 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제시문 (가)와 (마)의 논지를 파악하고, 국가권력의 정당성 확보 요건과 국가권력을 대하는 시민의 자세를 종합하여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와 (마)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파악한 내용을 적절한 핵심어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는가? 주어진 제시문 안에서 정보를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답안을 구성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 답안 참조 핵심어 : 국가권력, 권력의 주체, 국민 위임, 사회 질서, 국민의 기본권, 국민 안전, 법, 정의, 양심, 불의, 법을 어김(저항, 불복종) 	10
1-2	<p>【제시문 (가)~(라)의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상이한 폭력의 ‘목적’을 구분하여 서술하는 능력을 파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말하는 폭력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파악한 내용을 적절한 핵심어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는가? 주어진 제시문 안에서 정보를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답안을 구성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 답안 참조 핵심어 : 질서유지, 기본권과 안전 보장, 독재정권, 정치 엘리트, 식민주의, 사익 추구, 약자, 대항, 존엄성, 반강권(자치, 강압과 억압에의 저항), 행복 	20

예 시 답 안

- 1-1. (가)에 따르면 국가권력은 권력의 주체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야 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 및 안전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행사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마)에서 주장하듯이 주권자인 시민은 법으로 상징되는 국가권력에 맹목적으로 순응하기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과 양심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부당한 법이나 국가권력에 저항해야 한다.
- 1-2. (가)에서는 폭력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 보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나)는 권력자들이 권력을 사유화하여 빈민과 약자를 착취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 (다)는 단순히 지배자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주의 폭력에 의해 왜곡된 자기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치유하고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라)는 강압적이고 부당한 폭력이나 권력에 맞서 신념에 따라 자신의 자치와 행복을 지키는 것에 있다.

문항

2

문제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공성은 서구에서 유래된 ‘퍼블릭(public)’이나 ‘오피셜(official)’과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공(公)’이나 ‘공공(公共)’과의 접합으로 이루어진 개념이다. 영어를 한자어로 대체한 단순한 번역은 아니다. 이는 동양과 서양 모두 공공성에 대하여 오랫동안 성찰을 축적해 왔음을 보여준다. 공공성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우선 공공성은 공동체의 전체 이익과 관계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사적 이익에만 머무른다면 공공성의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다. 공공성은 또한 많은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며 그것에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의미가 있다.

(나) 정도전(鄭道傳)의 정치사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의 하나는 정치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과 아울러 정치권력을 철저히 공공성의 영역 안에 묶어두려는 의지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수미일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도전은 정치공동체의 근본 문제가 ‘자기중심성’에 있고, 고려의 정치적 경험에서 이 자기중심성이 특히 ‘사견(私見)’과 ‘사욕(私慾)’의 정치로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독선적인 정치와 폭정이 야기되었다고 보았다. 정도전은 이를 소유 지향적 정치로 보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론(公論)’과 ‘공의(公儀)’의 정치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문덕(文德)’의 정치라 불렀다. 정도전은 ‘개언로(開言路)’라 하여 정치적 소통을 지향하였는데, 그 핵심은 공공성이었다.

(다) 하버마스(Habermas, J.)의 용어 오펜틀리히카이트(Offentlichkeit)는 ‘공론장(public sphere)’으로 번역된다. 공론장은 사적 의견에 반대하는 공공성을 양산하고 유지하는 공공의 이슈에 대한 인식과 담론의 영역이다. 공론장은 단순히 시민사회가 아니며, 오히려 시민사회를 통합하고 국가에 연계시키는 공동으로 인식된 질문들이나 이슈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다. 공론장에서 시민들은 특정한 정치적 선택이 최상이라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은 어떤 정치적 선택이 만들어지는지를 공동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공론장은 일종의 공공 이슈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통합되는 영역이다. 공론장에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은 시민적 쟁점을 만들고 정책 제안을 통해 공동체의 공의를 증진시키게 된다.

(라) 류성룡(柳成龍)은 『시경(詩經)』의 “나는 지난 일을 징계하여 후환을 조심한다.”라는 구절에서 제목을 빌려와 『징비록(懲毖錄)』을 저술했다. 이 책은 단순히 임진왜란에 대한 개인적 기록이라기보다 전쟁사에 대한 주목할 만한 반향을 일으켜 처칠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긴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회고록에 가깝다. 류성룡은 임진왜란의 한가운데서 실무를 통괄했다. 그는 전란이 끝난 후에 전쟁 관련 문서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국가의 존망 위기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이다. 그는 『징비록』에서 “백성이 떠돌고 정치가 어지러워진 때에 나 같은 못난 사람이 나라의 중책을 맡아 위기를 바로잡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떠받치지 못하였다.”라고 성찰하며, 후세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집필 동기를 밝혔다.

(마) 다양한 소통채널인 소셜미디어는 각 사회영역으로 접근성을 높여 과거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결정의 장을 만들어냈다. 양질의 정보 제공과 소통을 통해서 미디어의 여론 형성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잘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기대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형성이

항상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에 대해 긍정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노엘 노이만(Noelle-Neumann, E.)의 침묵의 나선 이론(Spiral of Silence Theory)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지배적인 여론이 아닌 소수의견이라 생각할 때,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감추어야 한다는 압력과 소외의 공포를 느끼며 점점 침묵하게 된다. 또한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는 가짜 뉴스나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을 퍼뜨리면서 유권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협력을 방해하기도 한다. 결국 소셜미디어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하는 정치적 타협을 위한 환경을 악화시킨다.

2-1. 제시문 (나)와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마)의 내용을 비판하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가)의 공공성 개념을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나), (다), (라)의 내용을 각각 설명하시오. (300자±20자) [20점]

출제 의도

정치 공동체는 사적 이익의 영역과 공적 이익의 영역, 즉 공동체 전체 이익의 영역이 존재한다. 사적 이익이 공적 이익의 영역으로 투영되어 공공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우리는 늘 정치 공동체에서 목도하게 된다. 정치공동체는 항상 공공성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그 존속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문제 2는 공공성의 개념과 이와 관련하여 정도전의 정치사상, 하버마스의 공론장, 류성룡의 징비록, 소셜네트워크의 부정적 현상 등에 대한 제시문을 정치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바를 제시하고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2-1의 출제 의도는 (나)의 정도전의 정치사상에서 나타난 공론, 공의, 개언로 및 문덕의 정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나)의 공론장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공공 이슈 영역에서의 통합과 공동체 이익을 이해하고,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침묵의 나선이론과 가짜뉴스 및 선동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2-2의 출제의도는 우선 제시문 (가)에서 설명한 공공성의 의미 2가지를 찾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정도전의 정치사상, 제시문 (다)의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 제시문 (라)의 류성룡의 『징비록』이 지니는 공공성 측면을 학생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 제 해 설

문제 2는 공공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공공성의 개념 요소가 구현된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이동수(외)가 지은 『정부의 재발견』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은 공공성의 의미를 획득하기 위한 개념 설명을 두 가지로 하고 있다. 첫째는 공공성은 사적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관계되며, 둘째로는 많은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며 사람들이 그것에 관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의미이다.

제시문 (나)는 정순우(외)가 지은 『조선왕조의 공공성 담론』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제시문은 정도전

의 정치사상을 공공성의 의미로 기술하고 있다. 그는 고려가 정치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사견과 사욕의 정치가 나타나고 소유 지향적이고 독선적인 폭정이 야기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도전의 공론과 공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개언로와 문덕의 정치를 지향하였는데, 이를 공공성의 개념으로 기술하였다.

제시문 (다)는 브루스 빔버의 『인터넷 시대 정치권력의 변동』와 한국언론학회의 『한국사회의 소통위기』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은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서술하고 있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사적 의견에 반대하는 공공성을 양산하고 유지하는 공공 이슈에 대한 인식과 담론의 통합 영역이다. 공론장은 시민사회를 통합하고 국가에 연계시키는 공동으로 인식된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다. 시민들은 공론장에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쟁점을 만들고 정책 제안을 통해 공동체의 공익을 증진시키게 된다.

제시문 (라)는 류성룡(김시덕 역해)의 『징비록』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그는 임진왜란에 대한 문서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피해가 다시는 반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일을 징계하여 후환을 조심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집필을 통해 이 기록을 공공성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었다.

제시문 (마)는 김우룡의 『커뮤니케이션 기본이론』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은 양질의 정보제공을 통해 여론 형성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하는 소셜미디어의 부작용을 다루고 있다. 노엘 노이만의 침묵의 나선 이론과 가짜뉴스, 선동적 뉴스 등과 같은 사례는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타협을 어렵게 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문제 2-1은 제시문 (나)의 공론, 공의, 개언로 그리고 제시문 (다)의 공론장이 갖는 의미를 바탕으로 제시문 (마)에서의 소셜미디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론, 공의, 개언로 및 공론장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기본 관점에서 제시문 (마)에서 소셜 미디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문제 2-2는 제시문 (가)의 공공성 의미 즉, '사적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정보 공유와 개방'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통해, 제시문 (나)의 정도전의 정치사상, 제시문 (다)의 하버마스의 공론장, 제시문 (라)의 류성룡의 징비록이 갖는 공공성의 의미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제시문 (나)와 (다)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핵심어로 정리하여 제시문 (마)의 관점과 대조하여 제시문 (마)에 나타난 내용을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 파악한 핵심 내용을 적절한 핵심어로 정리하였는가? • 핵심어를 활용하여 (나)와 (다)의 문덕의 정치와 공론장의 기능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그 논지를 바탕으로 (마)의 현상의 문제점을 연결하여 비판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주어진 제시문 안에서 의미 및 연결점을 찾아야 함. -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 의사소통, 사견, 사욕, 문덕의 정치, 공론, 공의, 소통, 공론장, 공공이슈, 인식, 이해, 통합, 소수, 소외, 공포, 침묵, 가짜뉴스, 선동, 타협, 악화, 공동체 이익, 훼손 	15점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2-2	<p>【제시문 (가)의 공공성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시문 (나), (다), (라)의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에서 공공성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였는가? • 제시문 (나), (다), (라)의 내용을 공공성과 관련하여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 제시문 (가)의 공공성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 (다), (라)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 공공성, 기록, 전쟁사, 공론, 공의, 문덕의 정치, 개언로, 정치적 소통, 공론장, 의사소통, 정치적 타협의 악화 	20점

예 시 답 안

- 2-1. 제시문 (나)와 (다)는 사건이나 사육이 아닌 개언로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공 이슈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통합될 때, 문덕의 정치와 공론장을 통한 공동체 이익이 증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침묵의 나선이론처럼 압력과 소외로 인한 침묵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육과 사건의 가짜뉴스나 선동적인 내용으로 인해 판단력을 흐려 공공의 인식이 통합되지 않아 정치적 타협의 환경을 악화시켜 공동체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
- 2-2. (가)에서 공공성은 ‘공동체의 전체 이익’과 ‘개방적인 관여와 소통’의 의미를 지닌다. (나)에서 문덕의 정치와 개언로는 정치권력의 사유화가 아닌 공동체의 이익과 개방적인 정치적 소통을 중시하는 공공성을 의미한다. (다)에서 공론장은 시민들이 관여와 의사소통을 통해 쟁점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지닌다. (라)에서 징비록은 기록을 통하여 지난 일을 징계하여 후환을 조심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시대를 넘어 관여와 소통을 추구한다.

문항

3

문제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외할머니 가시고 열흘 뒤에 **아버지**가 가셨다
 상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일곱살 무렵 강에서 수영을 하다 죽을 뻔한
 아들을 구해준 마을 삼촌들께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하는 걸 잊지 않으며
 술잔을 들던 모습이 내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목욕이란다
 눈앞에 닥친 죽음을 맞기 위해 아버지는
 살아서의 버릇대로 혼자서 욕실에 들어가
 구석구석 이승의 때를 밀었다
 그리고 나서 달력 뒷장에 정갈한 필체로
 ‘잘 살고 간다, 화장 뿌려, 안녕.’
 한마디를 남겼다 아버지가 죽음을 기다리던 그 시간
 술꾼의 아들답게 나는 만취해 있었는데
 제일 먼저 당도한 막냇사위 말로는
 아버지 등에 박혀 있던 못이 풀렸다고 한다
 평생 빠질 것 같지 않던 손바닥 못도 풀려 있었다고 한다
 못도 산 자에게 박히는 것, 허리가 굽었던 사람도
 죽으면 몸이 곧게 펴진다고 하더니
 한평생 지게꾼으로 산 양반
 아들도 해드리지 못한 안마를 죽음이 해드린 것인가
 장례를 마치고 후줄근하게 땀에 전 몸을 씻다가,
 멀어져가는 호흡을 놓치지 않고 귀성길 준비라도 하듯
 혼자서 ㉠ **마지막 의식**을 치르시던 아버지의 고독한 밤이 생각났다

(나)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맞서 싸웠지만 그토록 두려운 죽음의 순간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매 순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 검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한 그 구멍을 뚫고 빨리 빠져나가지 못해서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느꼈다. 자신의 인생이 정당했다는 의식이 바로 그를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더더욱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강한 힘이 그의 가슴과 옆구리를 세차게 밀치는 것 같더니 숨을 쉬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는 구멍 속으로 굴러 떨어졌다. 구멍 끝에서 뭔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기차를 타고 가다보면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진짜 방향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이 순간 이반 일리치의 느낌이 그런 것이었다.

“그래, 모든 것이 잘못되었었다.” 그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괜찮아. 어찌면 아직, 아직 ‘그 걸’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지?”

그는 스스로 이렇게 자문하고 갑자기 침묵했다. … (중략) …

그러자 돌연 모든 것이 환해지며 지금까지 그를 괴롭히며 마음속에 갇혀 있던 것이 일순간 밖으로, 두 방향으로, 열 방향으로, 온갖 방향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가족들이 모두 안쓰럽게 여겨지고 모두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다.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신도 벗어나고 가족들도 다 벗어나게 해주어야 했다.

‘이 얼마나 간단하고 훌륭한 일인가!’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통증은? 통증은 어디로 갔지? 어이, 통증, 너 어디 있는 거야?’

그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아, 여기 있었군. 그래, 뭐 어때, 거기 있으라고.’

‘그런데 죽음은? 죽음은 어디 있지?’

그는 오랫동안 곁에서 떠나지 않던 죽음의 공포를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죽음은 어디에 있지? 죽음이 뭐야? 죽음이란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공포도 있을 수 없었다.

죽음 대신 ☺ 빛이 있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갑자기 그는 소리쳤다.

“아, 이렇게 기쁠 수가!”

이 모든 것은 한순간의 일이었고 이 한순간의 의미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그러고도 두 시간이나 더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의 가슴에서 뭔가 부글부글거렸다.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그의 몸에 경련이 찾아왔다. 부글거리는 소리와 숨이 차서 쉼쉼거리는 소리는 점차 찾아들었다.

(다) “운명하셨습니다.”

당직 수련의가 시트를 끌어당겨 아내의 얼굴을 덮었다. 시트 위로 머리카락 몇 올이 빠져나와 늘어져 있었다. 심전도 계기판의 눈금이 0으로 떨어지자 램프에 빨간 불이 깜박거리면서 삐삐 소리를 냈다. 환자가 이미 숨이 끊어져서 아무런 처치도 남아 있지 않았지만 삐삐 소리는 날카롭고도 다급했다. …(중략)…

“시신은 병실에 두지 못합니다. 곧 냉동실로 옮기겠습니다.”

수련의가 전화로 직원을 불렀다. 직원 두 명이 병실로 들어와 아내의 침대 주변과 쓰레기통, 변기에 분무소독액을 뿌렸다. 직원들은 아내의 시신을 벨트로 고정시켜서 침대에 싣고 나갔다. …(중략)… 원우과에서 지정해준 영안실은 3호실이었다. 아내의 사체는 냉동실로 들어갔고, 빈소에는 시체도 문상객도 아직은 없었다. …(중략)… 아내의 죽음을 몸으로 감당해야 할 사람은 나였지만, 아내의 장례일정 속에서 나는 아무 할 일이 없었다. 빈소에 설치된 전화기가 울렸다. 병원 경리직원이었다. **경리직원**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하고 나서, 아내가 죽기 전 일주일 동안의 치료비와 병실료를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내가 발병한 후 병원비는 삼천만원쯤 들어갔다. 수술을 여러 번 했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정밀검사와 고액처치가 많았다. 나와 딸이 병수발하느라고 쓴 돈을 합치면 사천만원쯤 들어간 셈이었다.

(라) 죽음 자체는 위협적이지 않다. 사람들은 기나긴 꿈속으로 떠나가고 세상은 사라진다. 두려운 것은 죽어가는 고통이며,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산 자의 상실감이다. 죽음을 둘러싼 집합적이거나 개인적인 환상은 종종 사람들을 섬뜩하게 한다. 그 공포의 독성을 완화하고 유한한 삶이라는 소박한 현실을 그에 맞세우는 것은 아직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미처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전에 그리고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젊어서 죽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메마른 땅을 헤매고 거기에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 역시 끔찍한 일이다.

다. 죽어가는 것을 둘러싸고 수많은 공포가 존재한다. 쉽고 평화롭게 죽어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답이 없다.

(마) 전근대 사회에서 죽음이란 현대 사회와 같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사건이었고 마을 전체가 관심을 갖는 대사(大事)였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생애의 마지막 순간인 임종을 자기 집에서 가족들에 둘러싸여 맞이했다. 이것은 임종자가 몇 명 되지 않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현대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과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부모의 임종에 모든 식구가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다음 절차인 장례 때는 마을 주민이 모두 참여하였다. 당시에는 마을이 매우 중요한 사회 단위였기 때문에 그 마을에 속한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죽음이라는 사건에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바로 옆에서 목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에 비해 지금은 유족이나 친지들이 한 사람의 죽음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관찰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요즘에는 집에서 친지들은커녕 가족들조차 임종을 같이 하는 게 대단히 힘들어졌다.

(바) 많은 환자들이 요양원이나 중환자실같이 고립되고 격리된 곳에서 치료를 받는다.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채 엄격히 통제되고 몰개성화된 일상을 견뎌 내면서 말이다. 늙어가다가 죽음에 이르는 경험을 정직하게 살펴보기를 꺼려하는 경향 때문에 우리는 환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더 많아졌고, 환자들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위로와 안식을 거부당해 왔다. 우리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성공적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의학, 기술,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손에 우리 운명을 맡기는 것이다.

3-1. 제시문 (라)에 근거하여 제시문 (가)의 ㉠과 제시문 (나)의 ㉡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3-2.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아버지, (나)의 지켜보는 사람들, (다)의 경리직원의 태도를 비교하시오. (350자±20자) [20점]

출제 의도

삶과 죽음은 분리하여 사고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죽음은 대단히 특수하고도 복잡한 현상이다.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인간은 죽음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죽음은 일상생활로부터 배제되거나 억압되었다. 고립된 죽음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산 자에게 심각한 고통과 상실감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존엄사와 관련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다. 죽음과 그것에 이르는 경험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마주해 나갈 때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삶을 풍요롭게 일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문제 3은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1은 고통과 상실감의 두려움을 넘어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는 (라)를 근거로 아버지의 “마지막 의식”과 이반 일리치가 도달한 “빛”의 의미를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3-2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마)와 (바)를 통해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 (나), (다)에 등장하는 인물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 비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 제 해 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만물의 자연스러운 질서다. 죽음의 불가피성을 부정하거나 불멸의 삶에 대한 갈구 또한 인간 실존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죽음에 직면해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셈이다. 이 문제는 과거와 달리 죽음을 직면하는 일이 어려운 상황에서 죽음의 과정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또한 죽음에 직면한 이들과 남은 자들이 죽음을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 3은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1은 고통과 상실감의 두려움을 넘어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는 (라)를 근거로 아버지의 “마지막 의식”과 이반 일리치가 도달한 “빛”의 의미를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죽음의 공포를 딛고 평화롭게 죽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제시문 (라)의 과제에 대한 대답이 바로 제시문 (가)와 (나)의 “마지막 의식”과 “빛”의 상징적 의미라 하겠다. 즉, 아버지와 이반 일리치가 보여준 태도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 죽어가는 고통과 산 자의 상실감을 넘어서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수용하는 과정인 것이다.

3-2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마)와 (바)를 통해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 (나), (다)에 등장하는 인물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 비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웃에 인사하고 목욕하고 유언을 남기며 죽음을 맞는 아버지, 이반 일리치의 죽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족들을 통해 공동체 문화 전통에 기반한 죽음의 경험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경리직원이라는 관찰자의 시선과 행위가 보여주듯이,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아내의 죽음은 철저하게 사물화되고 소외된 형태로 제시된다.

제시문 (가), (나), (다)는 죽음에 직면한 이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이 처리되는 방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문학작품을 제시하였다. 제시문 (라), (마), (바)는 죽음에 관한 철학적·사회학적 성찰을 담은 글을 통해 죽음 문화의 역사적 변화와 죽음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시문 (가)는 손택수의 「마지막 목욕-죽음의 형식 1」로, 마치 “귀성길 준비라도 하듯” 마지막 의식(儀式)을 묵묵히 치르는 아버지의 죽음을 맞는 자세를 잘 보여준다. 제시문 (나) 또한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으로, 죽음의 고통에서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그 공포를 극복함으로써 가족들의 상실감까지도 껴안는 주인공의 태도 변화를 잘 드러내고 있다. 반면, 제시문 (다)는 김훈의 소설 『화장(火葬)』의 일부분으로, 뇌종양으로 일찍 죽은 아내의 죽음이 병원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제시문 (가), (나)와 달리 제3자, 즉 죽음을 처리하는 병원직원들의 시선과 태도를 통해 죽음의 소외가 야기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했다. 제시문 (라)는 노르베르트 엘리아스의 『죽어가는 자의 고독』에서 발췌한 글로, 죽음의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쉽고 평화롭게 죽어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마)는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 죽음이 점점 낯설게 되는 이유를 역사적으로 탐구한 최준식의 『죽음학개론』에서 뽑았다. (바)는 아틀 가완디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서 발췌한 글로, 죽음이 의학적 경험으로 변질된 현대사회에서 통제된 공간에서의 연명 치료가 환자들에게 어떤 후유증을 초래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죽어감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주제는 『생활과 윤리』, 『사회』 교과목에서 주로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루고 있고, 『국어 I』, 『국어 II』, 『문학』,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한국지리』, 『사회·문화』 교과목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p>【제시문 (라)에 근거하여 제시문 (가)의 ㉠과 (나)의 ㉡의 의미를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라)의 핵심내용을 파악하였는가? 제시문 (가)와 (나)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였는가? 제시문 (라)의 핵심내용을 제시문 (가)와 (나)에 적용하였는가? 제시문 ㉠과 (나)의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는가?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 답안 참조 핵심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 고통, 상실감, 두려움, 공포, 유한한 삶, 쉽고 평화로운 죽음 (가) 인사, 목욕, 술잔, 이승의 때, 화장, 못, 귀성길, 마지막 의식 (나) 두려움, 고통, 구원, 검은 구멍, 빛, 가족, 통증, 기쁨 	15
3-2	<p>【제시문 (마)와 (바)를 바탕으로 인물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는 능력을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마)와 (바)의 핵심내용을 파악하였는가? 제시문 (가)와 (나), (다)의 인물의 태도를 제대로 분석하였는가? 제시문 (마)와 (바)의 핵심내용을 인물의 태도와 연관시켰는가? 제시문 (가)와 (나), (다)에 드러난 인물들의 태도상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는가?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 답안 참조 핵심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 (바): 가족 전체, 마을, 사회, 참여자, 관찰자, 고립, 격리, 단절, 통제, 몰 개성화된 일상, 위로, 안식, 운명 (가) 아버지: 인사, 목욕, 이승의 때, 화장 (나) 지켜보는 사람들: 가족, 아픔, 고통 (다) 경리직원: 치료비, 병실료, 납부, 명복 	20

예시 답안

3-1. (라)에 따르면 죽음은 죽어가는 고통과 남은 자의 상실감이라는 두려움을 넘어서고 삶의 유한성을 자각할 때 평화로워진다. ㉠은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아버지의 행위를 말한다. 이를 통해 죽음이 환기하는 공포와 삶의 미련을 극복하고 산 자의 상실감을 위로하며 고향에 가듯 죽음을 맞고자 한다. ㉡은 죽음의 공포와 위협을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이반 일리치는 죽음이 다가오자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가족들의 상실감까지 배려한다. 그 자각이 바로 빛으로 표현되었다.

3-2. 전근대사회에서 죽음이 가족과 마을 단위에서 이뤄졌다면, 현대사회에서는 고립된 곳에서 삶의 모든 것과 단절된 채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가)의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정리한 뒤 공동체 속에서 죽음을 마주한다. (나)의 지켜보는 사람들은 가족이다. 이들은 주인공의 죽음에 아파하는 방식으로 죽음에 참여한다. (다)의 경리직원은 관찰자로 ‘아내’의 삶에는 어떤 관심도 없이 죽음을 사무적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아버지와 지켜보는 사람은 죽음의 당사자이면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이들의 죽음은 억압되지 않고 가족 전체나 사회 단위의 위로와 안식 속에서 이루어진다. 반면, 경리직원이 경험하는 죽음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몰 개성화된 개인의 죽음에 불과하다.